

축 사

먼저, 상월원각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올 2011년도 가을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농부가 한해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수확하듯 우리 불자들도 마음공부의 풍성한 수확이 있으시길 기원해 봅니다.

대한불교천태종과 원각불교사상연구원에서 주최한 “미래세계와 불교”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본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하여 미래 사회에 불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깊이있는 진단과 제안의 열정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나, 한국사회는 국제화에 따른 다종교, 다문화 사회로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종교간 갈등을 예방·치유해야 하고,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나타나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 대회에서도 “다문화 시대 종교간 화합” 세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여러 현상과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건강하고 더불어 살기위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조계종에서는 “자성과 쇄신 결사”를 추진하여 먼저,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수 있다는 원력으로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로 명명하여 5대 분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여러 병폐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양약(良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진해 나갑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되고 논의되는 여러 주제의 내용들이 활발히 토론되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우리사회, 나아가 국제사회가 더 성숙하고 행복하게 공존해 갈 수 있는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하며 불교

발전을 위해 대회준비에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2555(2011)년 11월 12일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장 자 승